희망제작소 10주년

희망이슈
The Hope Issue

<희망이슈>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
희망제작소가 추진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슈페이퍼입니다. 매월 2회 발간합니다.

제17호 2016.11.09.

#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 - 북유럽의 삶을 위한 진로교육 메시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wolstar@makehope.org)

## 요약

○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생겨난 '헬조선, 지옥불반도'라는 용어는 청년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줌. 대졸자가 80%를 넘는 현실에서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준비만으로는 취업이 보장되지 않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함.

○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2012년부터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음. 북유럽 국가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탄탄한 사회복지 시스템과 낮은 소득불평등을 들 수 있음. 또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무상교육 속에서 일찍부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임.

○ 덴마크 진로교육은 1~9학년 동안 모든 교과목에 통합되어 운영됨. 8~9학년 시기 이뤄지는 학습계획서 작성에는 학생과 함께 학부모 · 담임교사 · 교과교사 · 상담사들이 참여함. 모든 학생은 8~9학년에 1~2주간 기업현장에 나가 직업을 체험하고 보고서를 작성함. 특히, 덴마크는 2004년 진로교육 혁신을 통해 그동안 학교에서 담당하던 진로교육 상담업무를 학교 밖 진로지도센터로 전문화하여 진행하고 있음. 학교를 중단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책도 갖춰져 있어서, 덴마크 진로교육은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핀란드의 직업교육은 직무수행능력에 기반한 직업자격제도를 근간으로 함. 직업자격은 8개 분야 39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직업자격', '숙련직업자격', '전문직업자격'으로 나눠짐. 직업계 고등학교를 통해 '직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상위단계는 현장 중심의 도제교육이나 폴리텍대학 진학 등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음. 핀란드에서 직업교육 관련 교사들은 석사학위나 기술전문학위,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하며, 3년간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함. 핀란드 직업교육은 현장에 기반한 교육으로써 실용적이며 실제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줌.

○ 한국의 경우, 진로교육법 제정과 자유학기제 전면도입 등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양적인 실적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인해 정책 본래의 목적보다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진로교육으로 실제 일터 현장을 체험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 스스로 지역사회와 일, 노동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일임. 아울러 자신의 특기, 적성, 꿈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 고민하며 진로를 찾아가는 일임. 교육은 그 자체로서 행복한 삶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함.

**키워드** 청소년 진로교육, 청년, 청년실업률,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행복지수

## 1. 청년,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 1) 2016년 한국의 청(소)년

2016년 2월과 3월의 청년실업률은 12.5%와 11.8%로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 최고수치를 갱신하였다. 통계상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고용보조지표'를 활용할 경우, 2016년 3월 체감실업률은 24.1%에 달한다.[1] 이십대 백수라는 뜻의 '이태백', 대학 졸업생 4명 중 1명이라는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족,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했다는 뜻의 3포세대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뜻의 N포세대는 우리시대 청년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젊은 네티즌 사이에서는 한국사회를 일컬어 '헬조선', '지옥불반도'라는 말이 유행한다. '헬조선'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직장을 구하더라도 월급쟁이로만 살아서는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빗댄 말이다. 여기에 더해 '지옥불반도'는 한국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헬게이트(지옥문)'를 열고 불반도로 들어서는 일이며, 노예전초지(학교)를 지나 온갖 고난을 겪으며 성채(대기업)에 진입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현실을 말한다. 물론 성채에는 아주 일부만 진입이 가능하며, 여기서 탈락한 이들은 '자영업 소굴'과 '치킨 사원'과 '백수의 웅덩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말들은 젊은이들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오늘날 청년세대가 당면한 문제는 세대의 지속가능성에서 볼 때 우리사회 전체가 풀어야할 과제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청년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든 점을 꼽는다. 문제는 해법이다.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주체적 대응이 중요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회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청년·청소년 세대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도전해볼 수 있는 사회적 지원망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껏 한국의 청년 · 청소년은 '무엇을 할 것인가' 혹은 '뭐해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흔히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으로 연결된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2000년 이후 대졸 이상 학력자가 80%를 넘는 상황에서는 옛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더 이상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준비 만으로, 대기업 혹은 공무원 등으로 대변되는 '취업'준비 만으로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어렵다.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스스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능동적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스스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의 개선이 시급하다.

### 2) 2016년 북유럽의 청(소)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행복한 국가들이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한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2012년부터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간하고 있는데, 2016년 보고서에 따

1) "3월 실업률 11.8% 체감실업률 24.1% '숨겨진 청년층 실업자들'". 『한겨레신문』 2016.05.12.

르면 덴마크는 1위, 핀란드는 5위, 스웨덴은 10위를 차지했다. 특히 덴마크는 2012년 첫 보고서 이후 네 번 중 세 번이나 1위를 차지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6년 157개국 중 58위를 기록하며, 지난해 47위보다 11단계 하락하였다.[2)]

북유럽 국가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비밀은 무엇일까? '세계행복보고서'에서 국가를 평가하는 행복지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건강수명, 사회적 지원, 사회적 신뢰, 인생선택의 자유, 관대함(기부) 등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국가 경제수준이 높고 부패가 적으며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수록 국민들은 행복하다고 느낀다. 특히 2016년 보고서에서는 복지분배의 불평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소득불평등이 적을수록 행복도도 높아졌다. 이미 알려졌듯이 북유럽 국가들은 높으면서도 투명한 세금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가 잘 구축되어 있다. 사회적 신뢰가 높고 청렴하며, 일과 직장이 양립 가능한 양성평등과 직장 내 수평적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다. 특히, 교육복지를 보면, 의무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와 대학교육까지 무료로 제공하며, 대학생에게는 생활비까지 지원해 준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졸업자 임금 차이가 크지 않으며, 대학수준은 평준화 되어 있고, 누구나 원하면 대학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진학만을 목표로 입시에 매달리지 않는다.

무상교육과 함께 탄탄한 진로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현장과 연계한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졸업 후 곧바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직업학교를 운영한다. 북유럽 청년과 청소년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절망하지 않고 행복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희망제작소와 목민관클럽[3)]은 2016년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한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8월11일부터 21일까지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의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현장을 둘러보았다.[4)] 그런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청년·청소년들이 헬조선을 벗어나 꿈과 끼를 살리며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이슈를 작성했다.

2) http://worldhappiness.report/

3)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연구모임, 2010년9월17일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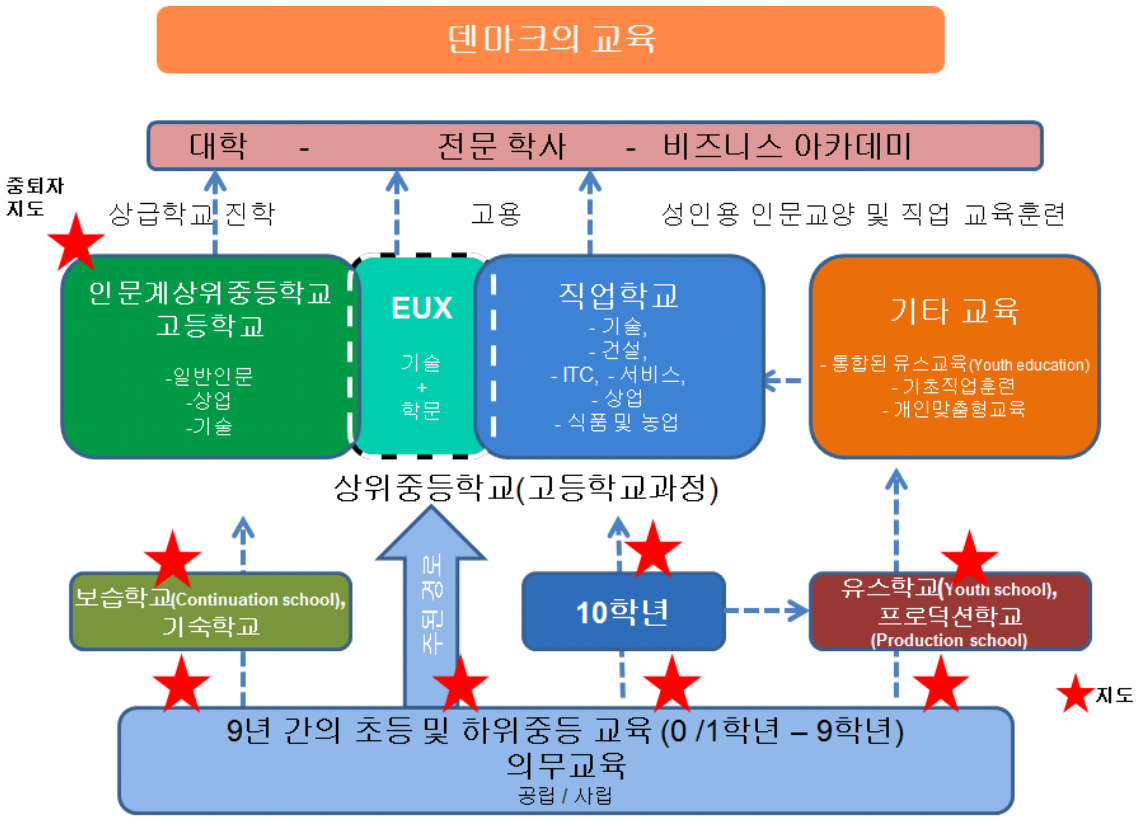
4) 북유럽연수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3개국의 진로, 직업교육현장 및 문화예술교육현장, 시민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였다. 본 이슈는 그 중에서 진로와 직업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 2.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덴마크 진로교육

### 1) 덴마크의 교육제도와 진로교육법

덴마크의 교육제도는 의무교육인 9년간의 기초교육(basic education: 초등교육과 하위중등교육), 상위중등교육(upper-secondary education), 그리고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위중등교육과정은 보통 3년 과정으로, 우리나라의 인문계고등학교와 같은 인문계 후기중등교육과 직업학교로 나뉘는데, 인문계 후기중등교육과정에 직업과정을 겸한 과정이 개설되기도 한다. 직업교육은 기술교육을 중심으로 직업학교에서 이루어진다. 덴마크의 진로교육은 학교교육법(Acts on the Folkeskole)과 진로지도법(Act on Guidance)에 의해 법적으로 명시되어 매우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학교교육법에서는 의무교육기간 동안에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로교육 및 상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범교과통합 필수주제로서 진로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단위학교는 8~10학년 시기에 학교 밖에서 기초 직업입문교육 및 실습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진로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진로지도법에서는 진로지도의 목적, 청소년 진로지도센터 및 지역 진로지도센터의 기능, 진로지도 포털의 운영, 진로포럼 운영이 명시되어 있다(김나라, 2009).

[그림 1] 덴마크의 교육체계




출처: 덴마크 청소년진로지도센터(2016)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 2) 덴마크 진로교육의 운영체계와 실제

덴마크의 진로교육은 2004년 '진로지도 개혁(Guidance Reform)'을 통해 단위학교에서의 진로교육과 진로지도센터를 통한 진로교육으로 크게 나뉘었다. 단위학교에서 진로교육은 ①교육, 직업, 노동시장 입문 주제의 교과통합운영, ②학습계획서 작성 의무화, ③1~2주가량의 직업체험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진로지도센터는 청소년 진로지도센터(Youth Guidance Center, UU: Ungdommens Uddannelsevejledning)와 지역 진로지도센터(Regional Guidance Center, Studievalg)로 나눠서 운영된다(김나라, 2009).

먼저, 단위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 직업, 노동시장 입문과정은 의무교육과정인 1~9학년에 걸쳐 모든 과목에 통합되어 운영된다. 특정과목이나 이수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안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단위학교마다 진로교육을 다양한 교과에 통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6~9학년 시기에 모든 학생들은 학습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자신의 교육 및 진로와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경력관리 형태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학습계획서 작성은 법적인 의무이며,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및 청소년 진로지도센터 상담사까지 함께 참여한다. 6~7학년 시기에 작성된 학습계획서는 이후 매년 수정·보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 2회 정도 상담사와 인터뷰가 이루어진다. 상담은 보통 집단상담 형태로 이뤄지는데, 소규모 그룹으로 현재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함께 공유함으로써 다음 단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약 20% 정도의 학생은 개별 진로상담이 필요해서 상담사가 개별연락 후 진행하기도 한다.
셋째, 모든 학생은 기본적으로 개별맞춤형 진로체험을 하는데, 8~9학년에 1~2주간 기업현장에 나가 직접 직업을 체험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유한다. 졸업 후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직업현장 뿐만 아니라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이루어지는 1주가량의 오리엔테이션 참여도 가능하다.

학교 밖 진로지도기관으로서 '청소년 진로지도센터'는 의무교육과정에서 후기중등교육과정(고등학교)으로 효과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특히, 6~9학년 학생들의 학습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학교를 방문하여 1:1 진로상담을 하거나 학부모, 교사 등과 의견을 교환한다. 8~9학년에 이뤄지는 현장실습을 지원하거나 10학년[5]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청소년 진로지도센터에서 10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은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는데 학생들이 개인의 문제점들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접근한다. 덴마크 전역에는 55개소의 청소년 진로지도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 진로지도센터'는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대학교)으로 효과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후기중등교육 프로그램에 속해있는 모든 학생이며, 현재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청소년 및 성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활동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질 높은 정보제공과 함께 고등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가능한 직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5) 기초교육과정은 9학년까지이지만 일정 역량에 미달하는 경우 1년을 연장하여 10학년을 다닌다.

목민관클럽이 방문했던 '코펜하겐 청소년 진로지도센터'에는 110명의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코펜하겐에 있는 57개 공립학교, 45개 사립학교, 33개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약 1,400학급 학생들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사들은 센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과 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중 약 25%정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10학년을 다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하여 이전보다 센 진로교육이 이뤄진다. 코펜하겐 청소년 진로지도센터에서는 10학년을 위한 진로교육과정을 5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10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가진 개인적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수업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데, 프로젝트 소개부터 자기 자신 소개하기, 진로과정 그려보기, 인터뷰 및 보고서 작성, 최종발표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일깨우고 영감을 주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독립심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 덴마크 진로교육의 시사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평가되는 덴마크의 진로교육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 한 명의 청소년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진로진도센터는 기본적으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기초교육과정(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상담을 지원하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복귀 프로그램도 적극 펼친다. 학교를 그만둔 학생 관련 정보가 청소년 진로센터로 즉시 취합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청소년들이 빠짐없이 기본적인 진로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둘째, 전문적인 진로지도체계를 수립하였다. 덴마크는 2003년 '진로지도법' 제정과 함께 그동안 단위학교에서 파트타임 형태로 운영되던 진로상담을 '전문 진로지도센터'로 이관하였다. 진로지도센터에서 활동하는 진로상담사들은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진로분야 학사 또는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역량을 개발한 이들이다. 이에 따라 진로상담사들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학생 개개인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운영한다. 기본적으로 기초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Education & Job' 이라는 교과목 시간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6~9학년 시기에 학습계획서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담임교사가 학생의 흥미, 적성, 가치관, 능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학습계획서를 작성하며, 기술된 학생의 역량을 학생과 학부모, 상담사, 교사와 논의하여 기초적인 학습계획과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수정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본 의무교육과정 이수 후 평가를 통해 상위과정(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은 1년을 더 다니거나 10학년과정으로 Efterskole (에프터스콜레), Youth school, Production school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선택하게 된다. 즉 누구나 자신의 학습속도와 상황에 맞게 배움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렇듯 덴마크의 진로교육은 우수한 학생을 양성하여 선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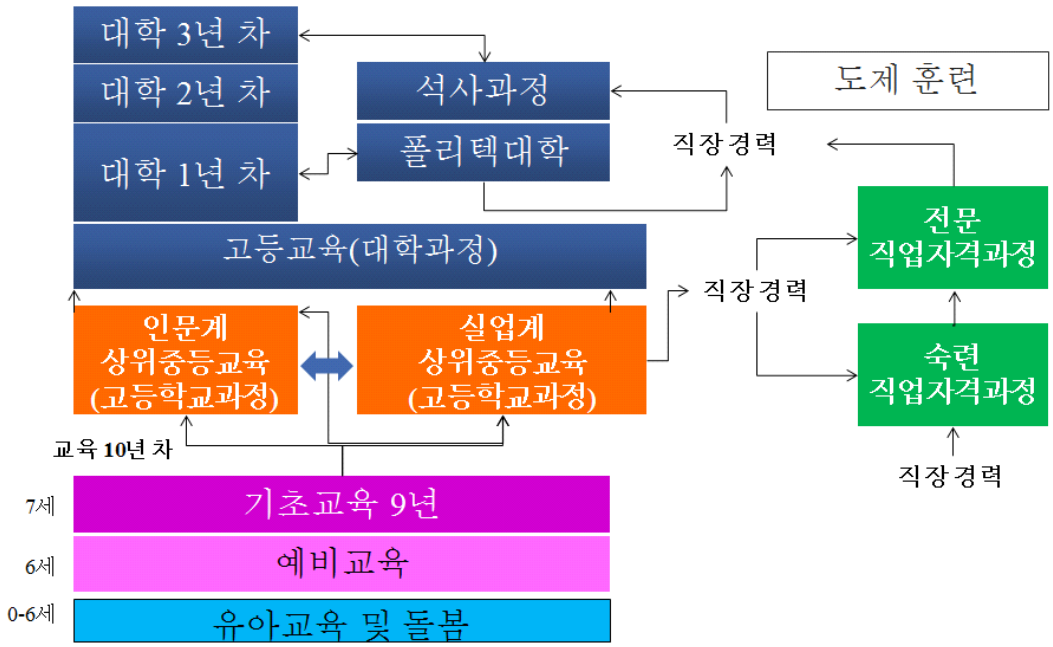
## 3. 유연하면서도 질 높은 핀란드 직업교육[6)]

### 1) 핀란드의 교육제도

핀란드 교육제도는 기초교육법(Basic Education Act)에 따라 9년간의 기초의무교육과정, 일반계 및 직업계 상위 중등교육(고등학교)과정, 고등교육과정(대학 및 폴리텍대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초교육과정 중 1~6학년까지는 공통과정이며, 7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한다. 8~9학년 동안에는 학교에서의 기초진로교육과 함께 2주간 직업체험을 실시한다. 직업체험은 실제 임금을 받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며 종료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2] 핀란드의 교육체계




기초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일반계 혹은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3년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졸업 시 고등단계 교육(대학 및 폴리텍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3년 동안 12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20학점 정도는 실제 현장에서 근무를 포함한다.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고등단계 교육으로 진학할 수 있다. 대학이나 폴리텍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해당 분야의 직업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특히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폴리텍대학은 관련 자격증을 따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핀란드 교육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정 중 전환이 가능하며, 상호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6) 임언 외 3인. 2009.「북유럽의 직업교육 실태 및 혁신 사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 2) 핀란드 직업교육 운영과정과 특징

핀란드의 직업교육 및 훈련은 젊은층과 성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법과 법령(Vocational Education Act, Decree on Vocational Education; Act on Vocational Adult Education, Decree on Vocational Adult Education)에 의해 운영된다. 핀란드의 직업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가 법률 및 예산을 다루며, 교육문화부 산하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FNBE;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는 교육문화부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국가교육위원회(FNBE)는 직업교육의 핵심 커리큘럼과 직업자격증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목적·핵심내용·평가기준을 설정한다.

직무수행능력 · 역량에 기반한 직업자격(competence-based qualification)은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뉘는데, 해당 직업분야에서 신입으로 취업가능한 수준의 '직업자격(Vocational qualifications)', 해당 직업분야의 숙련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기술 수준의 '숙련직업자격(Further vocational qualifications)', 해당 직업분야의 가장 까다로운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직업자격(Specialist vocational qualifications)'이다.
직업학교를 통해 '직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상위단계는 도제과정(Apprenticeships) 혹은 폴리텍대학 진학 등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 도제과정은 실제 현장에서의 훈련(on the job training)을 통해 전문자격을 취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직업교육은 실제 현장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큰 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에 의해 직업훈련 과정으로 도입되었다. 도제과정은 현장에서 이뤄지며 교육훈련기관, 성인직업교육센터 혹은 다른 교육기관에서의 이론수업과 함께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핀란드에서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교사는 교육분야 이론교육을 최소 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데, 직업교육 관련 교사들은 석사학위나 기술전문학위,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3년간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목민관클럽 북유럽연수단은 핀란드 야르벤빠(Jarvenpaa) 지역에 위치한 케우다 그룹(Keuda Group;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을 방문하였다. 케우다 그룹은 야르벤빠를 포함하여 헬싱키 주변 7개 지방자치단체(야르벤빠, 께라바, 만뜨샬랴, 누르미야르비, 뽀르나이넨, 뚜우쑬라, 시뿌)가 공동으로 설립한 그룹으로 직업학교와 직업훈련을 담당한다. 케우다 그룹은 의무교육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학교를 6개 지역에서 10개 운영 중이며, 성인교육은 8개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다. 직업학교는 성인교육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케우다 그룹에는 7,000명의 학생이 있으며, 이 가운데 2,300명은 성인이었다. 케우다 그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생수, 졸업률, 취업률 등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다. 케우다 그룹은 세계화된 산업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교류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지원예산을 삭감할 계획이어서, 교원 수를 줄이는 한편 일반학생과정과 성인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 3) 핀란드 직업교육의 시사점

핀란드에서 지난 10년간 기초의무교육과정인 종합학교를 마치고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생 비율이 2001년 36%에서 2013년 42%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고등학생의 80%가 대학을 진학하는 우리 현실과는 대조를 이룬다.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한 핀란드 직업교육이 주는 의미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직업현장에서 학교교육의 실용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게 되면 졸업장에 해당하는 해당 분야의 직업자격(Vocational qualification)을 부여받게 된다. 직업자격은 대학 진학을 위한 기초자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자격으로써 실제 취업에 도움을 준다.

둘째,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의 질을 관리한다. 핀란드 정부는 각 직업학교의 졸업생 수, 탈락률, 취업률 등 해당 학교의 직업교육 성과에 따라 직업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이에 학교는 학생들이 일정한 수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관리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질이 잘 유지된다. 아울러 직업교육 교사 자격으로 석사 이상 학력, 3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요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인다.

셋째, 직업교육제도가 유연하게 운영된다. 핀란드는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도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대학이나 폴리텍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직장 경험 등을 통해 확보된 역량이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학습 등도 직업계 고등학교 과정의 일부로 일정해 줌으로써 조기졸업이 가능하며,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었다. 기초교육 졸업자 중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비율이 2001년 36%에서 2013년 42%로 늘어났다.

넷째, '케우다 그룹'이나 인근의 '옴니아 그룹'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직업학교와 성인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지역 간 자원 배분으로 지역별 수요에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4. 제언: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알려진 덴마크는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철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진로교육을 진행한다. 기초의무교육기간(1~9학년)에 통합교과과정의 진로교육을 통해 자기 자신과 사회를 이해하며, 일과 직업에 대해 가치관을 형성한다. 학습계획서 작성과 진로탐색 과정에는 학생만이 아니라 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와 함께 전문상담사, 부모까지 함께 참여하며, 본인이 선택한 진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으로 진학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연한 시스템은 성인교육까지 이어진다.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진로교육 시스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의무교육기간 동안 통합교과과정으로 진로교육이 이뤄지며, 8~9학년에는 1~2주간의 현장 직업체험이 이뤄진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교육 및 일과 노동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진로를 깊이 있게 탐색하게 된다. 핀란드의 직업교육은 철저히 현장실무 중심의 자격체계에 근거하여 이뤄진다. 역량에 기반한 자격체계(competence-based qualification)는 천연자

원, 경영 및 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 문화, 인문 및 교육, 자연과학 등 8개 분야에서 393개가 운영되고 있다. 취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획득해야만 한다. 역량기반자격은 '수업을 얼마나 들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만큼 실무역량을 획득했는지' 평가해 주어진다.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직업자격(Vocational qualifications)'이 주어지는데, 120학점 가운데 최소 20학점은 현장연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진로교육을 고민하면서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도입 및 제2차 진로교육 5개년계획 수립 · 시행 등 다양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장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나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들은 현장체험처 발굴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북유럽 사례에 비춰보면 정작 중요한 한 가지가 보이질 않는다. 바로 철학의 빈곤이다. 진로교육의 목적이 '아이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살리는 것'이라면, 본래 목적에 맞게 다양한 방법이 강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은 '체험처 발굴'에만 매몰되어 있다. 교육부의 평가와 재정지원도 양적평가로 이뤄진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진로체험처가 다르지 않고, 중학생 현장체험 학습은 3~4일간 맛보기 수준의 일터 체험이나 진로캠프 참가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현장 일터 체험처 발굴이 어렵다보니 이를 악용하여 직업체험 사교육시장이 생겨나는 실정이다.

진로교육에 실제 일터 현장을 체험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 스스로 지역사회와 일, 노동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일이다. 아울러 자신의 특기와 적성이나 꿈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 고민하며 진로를 찾아가는 일이다. 당장 지역 현실 여건이 다양한 일터 체험처를 제공할 수 없다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진로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그 분야 전문가를 찾아가 인터뷰하거나, 관련 대학을 방문하여 선배들에게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희망제작소가 진로인프라가 취약한 완주와 전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기반 진로탐색 프로그램 '내-일 상상프로젝트'와 같은 프로그램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진로교육과 연계하여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직업교육'이다. 핀란드의 기초직업교육과정(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현장 실무중심의 자격체계에 근거한 교육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후 직업교육과정은 폴리텍대학으로 이어지며, 기술학사, 기술석사 과정으로 이어진다. 물론, 이러한 직업교육과정은 교육제도 개혁을 통해 인문계 고등학교 혹은 일반대학과 상호연계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거쳐 전문대학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기술 ·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대학(폴리텍대학),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을 중심으로 한 직업훈련기관으로 이원화 되어있다. 여기에 더해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운영되는데, 각 제도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7]과 국가자격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도입하였으나 현장과 괴리되어 교육과정이 설계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8]

---

7)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함.

8) "NCS교육과정 밀어붙이기 '울화통' 터지는 전문대 교수들". 『경향신문』 2016.3.1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유럽의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하게 모든 학생들을 포용하면서도 산업현장에 기반한 실용적인 교육시스템이라는 점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북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제도들을 적극 도입하면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제도 도입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점은 사회문화적 배경과 철학의 환기이다. 청년을 포함한 국민들의 행복만족도가 높게 평가되는 북유럽사회를 보면, 사회적 신뢰와 청렴도가 높으며, 양성평등과 사회복지 수준이 발달해 있고, 학력 간 임금격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들이 일찍부터 경제적 불평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조건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2016년 대한민국 현실과 북유럽을 비교해볼 때, '교육은 그 자체로서 행복한 삶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철학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http://worldhappiness.report/

https://en.wikipedia.org/wiki/World_Happiness_Report

"3월 실업률 11.8% 체감실업률 24.1% '숨겨진 청년층 실업자들'". 『한겨레신문』 2016.05.12.

"NCS교육과정 밀어붙이기 '울화통' 터지는 전문대 교수들". 『경향신문』 2016.03.15.

권기태 외. 2016. 『2016 목민관클럽 해외 정책연수 결과자료집』. 희망제작소.

안승문. 2009. 「북유럽 복지국가의 교육과 한국 교육의 과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승희 외. 2012. 「평생학습사회의 직업교육훈련 체계 개선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조정윤, 오혁제. 2013. 「국가자격체계(NQF)의 도입 방향과 추진 전략」. *The HRD review.*

김나라. 2009. 「덴마크의 진로교육 체제 및 교과통합 진로교육 사례 고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언 외. 2009, 「북유럽의 직업교육 실태 및 혁신 사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세상의 모든 희망이 모이는 곳

희망제작소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Think and Do Tank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가입문의
02·2031·2130
give@makehope.org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희망제작소

www.makehope.org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